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 (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 A4용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족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9:1-3]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란 말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족 되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겪은 일들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집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의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예는 노예일 뿐이죠.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형통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형통의 조건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조건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23)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조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일 때에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디며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낙담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않았습니. 요셉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우리가족 되길 바랍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 1.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심하고 좌절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나요?
- 2.최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나를 낙담하게 하는 일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보고 믿음으로 격려해봅시다. (ex: 낙심하지 말고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실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A4 용지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낙심과 불평 대신 순종하자” 라고 크게 적어서 잘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번 한 주간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순종해봅시다.